

KMI 북방물류 동향리포트

KMI 북방물류 동향리포트 제89호 2019년 5월 22일

항만·물류연구본부 글로벌SCM연구실 △Tel.+82-51-797-4665 Fax.+82-51-797-4659 △총괄:박성준 러시아연구센터장 △감수:길광수 명예연구위원 △편집:김엄지 연구원

주요내용

통계로 보는 북방(p.2)

- 금 1분기 트라세카(TRACECA) 프로그램상 아제르바이잔 물동량 감소 추세...환적량은 약 21% 감소

주요 동향(p.4)

• 동부(p.13)

- 올해 러시아의 對동아 수출액, 對유럽 수출액 초과할 듯
- 한국, 연해주 수산클러스터 프로젝트 공동개발 의사 표명
- 연중 생산 가능한 야쿠치야 온실단지 착공

• 중부(p.10)

- 아제르바이잔 철도공사, 중국發 '컨' 물류 허브 도약...러시아 철도공사와 협력 논의

• 서부(p.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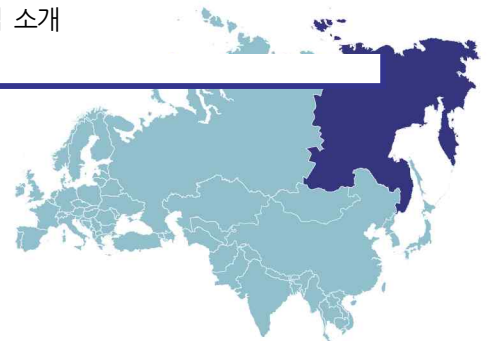
- 엑손모빌, 흑해지역 천연가스 개발...인근국 가스 수입 다각화 기대

주요통계(p.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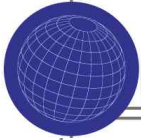
- 2019년 1~3월 국가별 러시아 극동지역 수출입 규모

공지사항(p.19)

- 제9차 한러극동포럼 소개
- 신북방 경제협력 플라자 사업 소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통계로 보는 북방

■ 금 1분기 트라세카(TRACECA) 프로그램상 아제르바이잔 물동량 감소 추세...환적량은 약 21% 감소

- 아제르바이잔 국가통계위원회(The State Statistical Committee of the Republic of Azerbaijan)는 2019년 1분기 트라세카(TRACECA) 프로그램에서 아제르바이잔 물동량이 총 1,256만 4,500백 톤을 기록했음
 - 이는 작년 동 기간 물동량에 비해 9만 9,800 톤(1.56%)이 감소한 수치이며, 회전율 또한 킬로미터 당 8,350만 톤(3.04%)이 감소한 것임
 - 한편 환적량은 전체 물동량의 16.3%인 250만 2,400 톤을 기록했으며, 이는 작년 대비 53만 3,600 톤(20.63%)이 감소한 것임

TRACECA(Transport Corridor Europe-Caucasus-Asia)¹⁾ 가맹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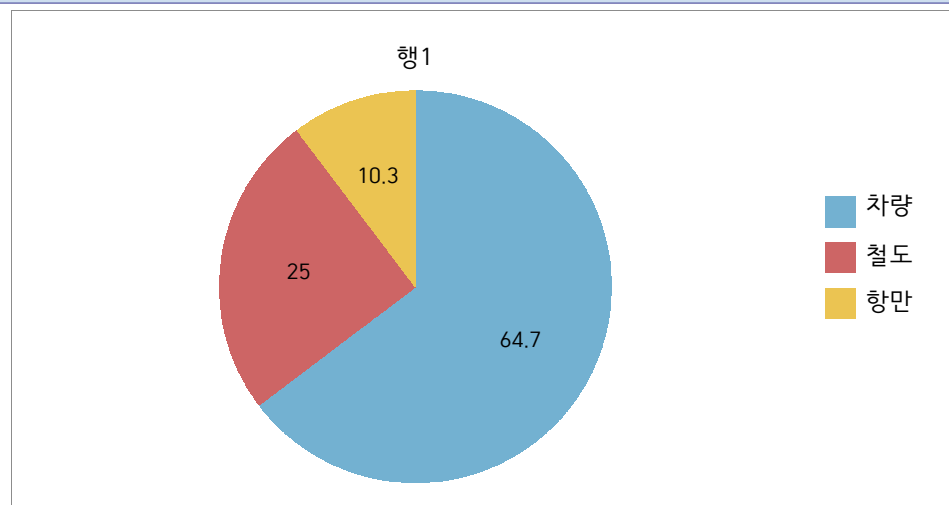
자료: TRACECA.ORG 2017

1) 1998년 바쿠에서 조직된 정부 간 협력체로,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장거리 물류회랑을 통한 지역 경제 발전 및 공동 번영의 도모를 목표로 하고 있음. 현재 가맹국은 총 14개국으로 구소련 국가(우크라이나, 조지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몰도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를 중심으로 루마니아, 불가리아, 터키, 이란이 합류했음

- 한편 운송수단별 물동량 비중의 대부분은 차량이 차지하고 있으며, 철도와 항만의 비중이 그 뒤를 이었음
 - 차량을 이용한 물동량은 813만 4,100 톤(64.7%)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철도 물동량이 313만 7,000 톤(25%)을 기록했음.
 - 항만 물동량은 올해 1분기 전체 물동량의 10.3%인 129만 4,300 톤임
 - 항만 물동량 비중이 낮은 것은 내해라는 카스피 해의 지리적인 특성과 낮은 인프라 구축 수준과 무관하지 않아 보임

2019년 1분기 운송수단 별 물동량 비중

(단위: %)



자료: Denizxeber.az 2019

■ 참고자료 : <https://denizxeber.az/2019/05/20/traceca-nin-az%99rbaycan-hiss%99sind%99n-dasinmis-tranzit-yukl%99rin-h%99cmi-21-d%99k-azalib/> (검색일: 2019년 5월 21일)

조용성 현지리포터(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학교)

+7 981-198-65-06, mirinae2929@gmail.com



동부권역 주요 동향

■ 올해 러시아의 對동아 수출액, 對유럽 수출액 초과할 듯

- 러시아수출청(Russian Export Center)은 2019년 동아시아 방향으로의 수출이 서유럽 방향으로의 수출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했음
 - 2018년 한 해 동안 對동아시아 수출 총액이 전년 대비 39.3% 증가한 935억불에 달함
 - 러시아수출청에 따르면 에너지 자원, 구리, 어류, 종이, 식물성 기름 등을 수입하는 중국이 러시아의 對동아시아 수출 증가를 이끌었다고 밝힘
 - 한국은 중국에 이은 동아시아 제2의 수입국으로 2018년, 수입 물량이 전년 대비 44% 증가해 55억불에 달함
 - 한국은 러시아 석탄 1위 수입국이며 2019년 5월 미국의 이란산 원유 수입금지 예외 조치가 중단되면서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됨
 - 러시아 경제 전문가들은 유가가 배럴당 70달러에서 60달러로 하락하면 수출이 9.1 %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함
- 자원에 치중된 對동아시아 수출 구조는 원자재의 가격에 크게 의존한다는 한계를 가짐
 - 러시아수출청은 최근 몇 년간 중국이 석유와 석유 관련 제품 외의 상품에 대한 수출을 늘리지 않고 있다고 판단함
 - 따라서 러시아의 對동아시아 수출 증가세는 고유가 상황이 유지될 경우에만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러시아 역시 에너지 자원으로 치중된 수출 구조를 개선하고자 하며, 따라서 2019년의 對동아시아 수출 증가세가 지속될지는 불확실함
 - 만투로프 러시아 산업통상부 장관은 2019년 비원자재, 비에너지 분야에서의 수출액을 2,500억불까지 증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힘



- 참고자료 : http://logirus.ru/news/custom_and_ved/rossiyskiy_eksport_-mozhet_otvernuty_sya-_ot_zapada-_radi_vostoka.html (검색일: 2019년 05월 9일)
- <https://iz.ru/875795/irina-badmaeva/zameshchenie-evropy-vostok-vpervye-obgonit-zapad-po-importu-iz-rossii>(검색일: 2019년 05월 9일)

이호건 리포터(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leehkun2010@gmail.com



■ 한국, 연해주 수산물클러스터 프로젝트 공동개발 의사 표명

한국-연해주 협약서 체결



자료: 연해주정부 웹사이트

- 한국과 연해주 간 수산분야의 프로젝트 협력이 추진됨
 - 최근 주식회사 극동경매어시장은 한아시아 경제협력 협회(코아카-KOAECA)와 연해주 일대에 수산물 경매단지 및 농수산물 가공단지 건설사업을 공동 추진한다는 내용의 협약서를 체결했음
 - KOAECA는 한국의 외무부 등록 사단법인으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아시아 각국의 비즈니스 파트너들과 매칭을 제공해 주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임
- 연해주정부 공보실에 따르면 양 기업 간 체결한 협약서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 5년간의 협력기간을 명시했음
 - KOAECA 이남기 회장과 주식회사 극동경매어시장 세르게이 렐류힌 사장이 각각 서명한 협약서에는 양측이 향후 극동 연해주에 수산물 경매단지와 아태지역 국가

로의 수출을 겨냥한 농수산물 가공단지 건설과 관련한 투자 프로젝트를 공동 실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 또 하나의 협력분야로는 러시아 조선소 투자쿼터 프로그램에 따라 건조되는 선박에 장착할 수산물 가공장비를 생산하는 한러 합작기업 설립을 추진한다는 의향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짐

- 한편 연해주정부 관계자는 “조만간 1천톤 규모의 어류 수매 최초거래를 경매시장에서 시행할 계획”이라며 “이는 아시아시장 진출의 포문을 여는 아시아항 최초의 대형 경매거래가 될 것”이라고 강조함

■ 참고자료 : <https://www.primorsky.ru/news/160466/>(검색일: 2019년 5월 16일)

전명수 현지리포터(국립블라디보스톡경제서비스대)

070-5044-9502, msjeon1976@gmail.com



■ 연중 생산 가능한 야쿠치야 온실단지 착공

- 5월 14일 극동개발펀드의 지원으로 야쿠치야 온실단지 2단계 건설이 시작됨
 - 본 온실단지는 연중 운영이 가능하며 착공식에 일본 Hokkaido Corporation사가 참석함
- 본 온실단지는 작물재배가 힘든 영구 동토층에 건설된 유일한 온실단지로 양배추, 오이, 토마토 등을 생산함
 - 이번 프로젝트는 ‘칸가라스’ 선도개발구역에서 ‘사유리’사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총 투자금액은 약 17억루블로 이 중 약 3억루블을 극동개발펀드에서 투자함
 - 또한 일본의 독창적인 기술이 들어간 3단 필름을 사용해 빛 투과율을 약 94%까지 높였으며 이는 유리보다 많은 빛 투과율임
 - 온실단지의 온도 조절 시스템은 중앙 컴퓨터를 통해 자동으로 관리되며 수정 시스템 또한 설치됨
 - 또한 영하 50℃에서 영상 50℃까지 100℃가량의 온도차를 견딜 수 있게 설계됨
- ‘사유리’사의 드미트리 자하로프 대표는 현대적인 구조와 에너지 절약 시스템 등과 같은 농업 기술을 통해 연간 약 1,000톤의 작물을 생산할 수 있으며 안정적인 수익률을 가진다고 함
- 새로운 온실단지의 면적은 약 1.3ha로 2020년까지 약 2ha로 확대할 계획임
 - 또한 10개의 온실 구역을 만들어 작물을 생산할 계획임
- 야쿠츠크시의 경우 1년 중 8개월을 지역 밖에서 채소를 공급해야 하는데 이번 온실단지 건설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연중 신선한 채소를 공급할 수 있게 됨
 - 본 온실단지의 총 생산능력은 약 1,900톤으로 이는 야쿠츠크시 인구의 약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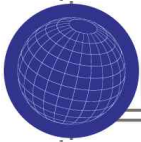
까지 신선한 채소 공급이 가능한 양임

- 본 프로젝트는 극동지역에서 진행된 세 번째 농업분야 발전 프로젝트임
- 본 프로젝트는 사회적으로 높은 중요성을 가지며 신선하고 고품질의 식품을 생산해 지역주민들에게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참고자료 : <https://minvr.ru/press-center/news/21999/>(검색일: 2019년 5월 19일)

김은미 현지 리포터(국립극동교통대학교)

051-797-4776, usea1004@g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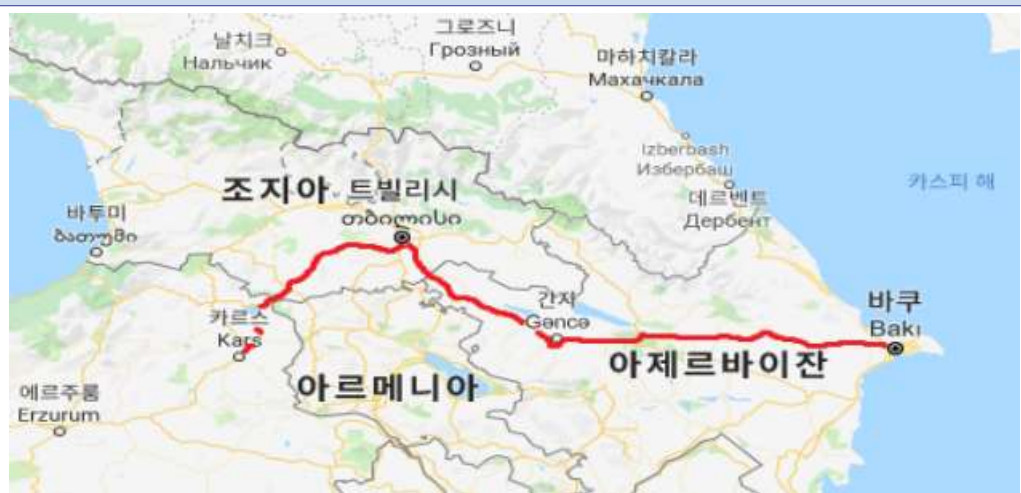


중부권역 주요 동향

■ 아제르바이잔 철도공사, 중국궈 '퀵' 물류 허브 도약...러시아 철도
공사와 협력 논의

- 5월 6일 올렉 벨로제로프(Oleg Belozеров) 러시아 철도공사(Russian Railways) 사장은 자비드 구르바노프(Cavid Qurbanov) 아제르바이잔 철도공사(Azerbaijan Railways) 사장과 회동해 남북 및 동서 철도회랑에 대해 논의했음
 - 벨로제로프 사장은 바쿠(Baku, 아제르바이잔)-트빌리시(Tbilisi, 조지아)-카르스(Kars, 터키) 노선의 역량을 높이 평가하며, 러시아 측도 중국궈 동서 철도회랑 화물 기지로서의 역량 강화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겠다고 언급했음
 - 또한 양국 화물 수속처리의 디지털화가 지난 해 50%에서 87%로 확대되었다며, 양국 철도 협력의 현황과 미래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음
 - 구르바노프 사장 또한 러시아 철도공사는 아제르바이잔 철도의 가장 중요한 사업 파트너이며, 임직원들의 높은 역량과 서비스 품질은 자국 철도 관계자들의 귀감이라고 화답했음

바쿠-트빌리시-카르스(BTK) 노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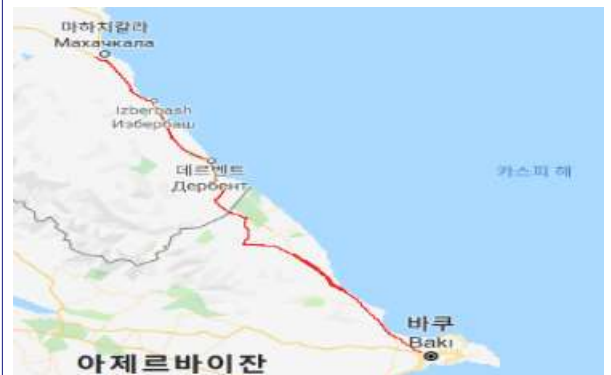


자료: Google Maps 2019



- 또한 양측은 인도, 이란이 함께 참여하는 남북 국제철도회랑(International North-South Transport Corridor) 프로젝트를 완성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음
 - 러시아 측은 현재 기본운임 및 물류체계 개발을 완료했고, 인도 기업과 합작해 화물기지 유치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언급했음
 - 또한 라슈트(Rasht, 이란)-아스타라(Astara, 아제르바이잔) 노선이 완공된다면, 연간 물동량은 10만TEU를 달성할 것이라고 예측했음
 - 또한 양측은 바쿠-마하치칼라(Makhachkala, 러시아) 여객노선 건설을 포함한 세관절차 활성화에 공동 노력을 다할 것을 결의했음

남북 국제철도회랑 프로젝트(좌: 라슈트-아스타라 / 우: 바쿠-마하치칼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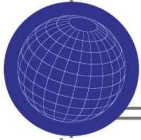


자료: Google Maps 2019

■ 참고자료 : <https://mor-vesti.az/2019/05/06/%D1%80%D0%BE%D1%81%D1%81%D0%B8%D1%8F-%D0%BF%D1%80%D0%B5%D0%B4%D0%BB%D0%B0%D0%B3%D0%B0%D0%B5%D1%82-%D1%81%D0%BE%D0%B7%D0%B4%D0%B0%D1%82%D1%8C-%D0%BA%D0%BE%D0%BD%D1%82%D0%B5%D0%B9%D0%BD%D0%B5%D1%80/> 2019(검색일: 2019년 5월 7일)

조용성 현지리포터(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학교)

+7 981-198-65-06, mirinae2929@gmail.com



서부권역 주요 동향

■ 엑손모빌, 흑해지역 천연가스 개발...인근국 가스 수입 다각화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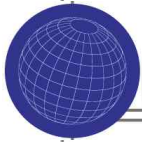
- 엑손 모빌(Exxon Mobil)이 흑해 지역에 천연가스 개발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올해 9월에 결정할 방침
 - 이는 루마니아의 흑해 지역에 위치하며 오스트리아 에너지기업인 OMV 페트로름(OMV Petrom)과 함께 운영될 대규모 가스전을 개발하는 프로젝트임
 - 투자가 결정된다면 해당 지역에는 현재 러시아 가즈프롬(Gazprom)이 지배하고 있는 러시아산 가스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2040년까지 루마니아 정부 수입을 약 260억 달러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특히 헝가리는 루마니아로부터의 천연가스 공급을 통해 수입 다변화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만일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헝가리 정부는 계속해서 러시아산 가스를 공급 받을 수밖에 없으며, 올해 말 장기 공급 계약을 위한 협상 준비에 돌입할 예정임
 - 현재 헝가리는 러시아와 2021년까지 장기 천연가스공급 계약을 체결한 상태임
 - 헝가리는 내륙국(land-lock)이며 인근지역으로부터 천연가스 수입이 필수적인 상황으로 전체 수입량의 85%가 일반가정에서 소비되고 있음
 - 헝가리 외교통상부 장관은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엑손모빌이 유럽지역에 에너지 공급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투자 결정을 내려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힘
- 헝가리는 천연가스 수입 다변화가 필요하나 이는 크로아티아, 루마니아, 미국 및 오스트리아 등 4개국에 의해 결정될 수밖에 없음
 - 루마니아 흑해 인근에 미국의 엑손모빌이 잠정적으로 투자를 계획하고 있어 향후 천연가스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여기에는 오스트리아 OMV 페트로름이 함께 참여할 예정임

- 또한 인근 크로아티아에 건설 중인 LNG 터미널 등도 천연가스 공급처가 될 수 있음
- 한편 엑손모빌은 해당 프로젝트의 투자 여부를 결정할 몇 가지 동인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음

■ 참고자료 : Romania-Insider, Budapest Business Journal (검색일: 2019.5.20.)

김보경 연구원

051-797-4674, kimb@kmi.re.kr



주요 통계

2019년 1~3월 국가별 러시아 극동지역 수출입 규모

(단위: 천 달러)

국가	2019.01.01.~2019.03.31.	
	수출	수입
합계	6,238,079.2	1,495,612.9
CIS :		
아제르바이잔	598.4	107.5
아르메니아	301.9	53.6
벨로루시	3,717.3	3,195.9
카자흐스탄	49,050.5	9,949.6
키르기스스탄	53.0	36.7
몰도바	544.5	187.8
타지키스탄	138.9	2.2
투르크메니스탄	166.3	-
우즈베키스탄	500.9	971.2
우크라이나	458.6	1,313.0
CIS 합계	55,530.4	15,817.5
해외 :		
오스트레일리아	1,532.6	3,048.5
오스트리아	797.9	5,220.6
알바니아	-	1
알제리아	0.2	-
앙골라	-	4.6
아르헨티나	6.7	16,509.7
바하마	-	0.3
방글라데시	371.8	1,443.6
바베이도스	0.5	1.5
바레인	129.8	-



벨기에	506,159.9	12,819.7
불가리아	-	61.8
볼리비아	6.4	-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	7.4
보츠와나	1,111	-
브라질	6.4	18,212.1
브루나이 다루살람	7.7	-
헝가리	-	1,488.7
베네수엘라	1.7	-
버진 제도	68	-
베트남	30,658.3	5,926.8
가봉	2.8	-
가이아나	2.6	-
아이티	-	7.6
감비아	-	0.2
가나	4	-
과테말라	0.4	2.2
독일	13,695.4	23,185.7
온두라스	-	13.9
홍콩	38,941.7	4,772.1
그리스	-	90.2
조지아	116.5	74.1
덴마크	2,689	2,097
도미니카 공화국	-	10
이집트	2,383.9	1,507.8
짐바브웨	-	129.8
이스라엘	74,208.8	21.4
인도	153,680.1	10,097.9
인도네시아	3,635.3	1,765.5
이라크	22.3	-
이란	18.4	54



아일랜드	-	113.3
아이슬란드	-	4,134.9
스페인	650.7	4,868.3
이탈리아	244.4	21,808.1
캄보디아	304.6	10.5
카메룬	2.5	-
캐나다	3,131.3	5,777.6
카타르	25.7	-
케냐	15.3	-
사이프러스	3,632.2	-
중국	1,299,263.4	855,829.3
콜롬비아	497.1	1.8
북한	10,674.3	20.6
한국	2,188,865.8	123,289.4
코스타리카	-	3.4
코트디부아르	3.5	-
쿠바	-	0.9
쿠웨이트	16.9	-
라오스	-	1.7
라트비아	4.5	576
레소토	-	1,684.9
리비아	1.2	-
리투아니아	4.7	56.5
룩셈부르크	-	1.8
모리셔스	-	2
마다가스카르	-	1.3
말레이시아	17,228.2	4,706.5
모로코	-	4.8
멕시코	9,524.7	5,555.6
몽골	11,272.8	973.4
미얀마	-	3.6



나미비아	-	1,001.2
네팔	123	-
나이지리아	4,165.8	-
네덜란드	1,021.1	4,250.3
니카라과	-	1
뉴질랜드	279	693.8
노르웨이	62.6	2,941.8
아랍에미리트	131,270.8	7,177.7
오만	1,555.4	-
파키스탄	637.5	7,399.3
파나마	1,709.2	-
파라과이	-	7,774.8
페루	4,057.5	132.6
폴란드	209.4	2,041.3
포르투갈	-	349.2
푸에르토리코	-	1
마케도니아	-	2
루마니아	52.8	12,727.7
사우디아라비아	22.7	2
세인트헬레나 어센션 트리스탄다쿠냐	0.2	-
세르비아	3.9	1,751.7
싱가포르	3,658	4,951.1
슬로바키아	4.1	195.8
슬로베니아	-	78.4
영국	1,219.3	15,985.4
미국	12,694.5	67,852.9
유럽연합	-	9.9
시에라리온	-	27.5
대만	155,049.7	12,259.4
태국	6,280.8	20,470.2
탄자니아	-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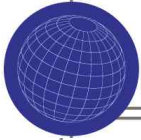


트리니다드 토바고	3.4	-
튀니지	-	45.9
터키	30.3	5,872.6
우간다	-	17.4
우루과이	-	1,018.7
페로 제도	-	82.7
피지	0.4	-
필리핀	65,020.7	543.3
핀란드	130.2	4,260.5
프랑스	480.6	17,504.9
크로아티아	-	23.4
차드	1	-
체코	63.9	2,700.8
칠레	3,015.4	11,722.3
스위스	10,609.5	1,124.4
스웨덴	21.1	1,552.3
스리랑카	559.7	588.9
에콰도르	1,068.7	10,181.1
엘살바도르	-	30.7
에스토니아	115.8	12.7
남아프리카 공화국	11.6	501.1
자메이카	2.1	-
일본	1,400,344.6	113,901.4
기타	1,304.9	12.9
해외 합계	6,182,548.9	1,479,795.4

참고자료 : <http://dvtu.customs.ru>(검색일: 2019년 5월 21일)

Peter Ruzankin 연구보조원(KMI 러시아연구센터)

7-914-345-3947, aquillar7@gmail.com



공지사항

1 한러 극동포럼 개요

□ 배경과 목적

- 초국경 협력시대 개막 전망에 따른 극동러 지역에서의 한러 공급사슬 구축을 위한 협력 방안 제안
 - 자바이칼, 부랴트공화국 편입에 따른 극동 공간 확장에 부응
 - 남북러(중) 협력 가능성 논의의 장 제공
- 실질적인 투자와 우리 기업 진출에 '기회의 장' 제공
- 한러 협력을 통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성공모델 창출에 기여

□ 주 제 : 초국경 협력시대 극동에서의 한러 공급사슬 구축방안

□ 일 시/ 장소 : 2019. 6. 4(화) ~ 6. 5(수), 블라디보스토크

□ 주 최 및 주관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주블라디보스토크 총영사관

□ 주요 포럼 일정

6. 4(화)	18:00 ~ 20:00	▪ 한러 정책 다이얼로그 - 블라디보스토크 롯데호텔 랑데뷰
6. 5(수)	09:00 ~ 17:20	▪ 한러 극동포럼 - 블라디보스토크 롯데호텔 다이아몬드A홀
	14:00 ~ 17:30	▪ 신북방 경제협력 플라자 - 블라디보스토크 롯데호텔 다이아몬드B홀



2 한러 정책 다이얼로그(안)

□ 개요

- 일시 및 장소: 2019. 6. 4(화), 18:00~20:00, 롯데호텔 랑데뷰
- 주제: 극동러 개발을 위한 한러 협력 성과와 확대방안
- 주요 참가자:
 - (한측, 총 13명) KMI 양창호 원장, 국토연구원 강현수 원장, 산업연구원 장지상 원장, 블라디보스토크 총영사, KOTRA 양장석 관장, KMI 이성우 본부장, 기업은행 이현수 소장, 서울대학교 안동환 교수, 유수로지스틱스 임오규 대표, 포스코에너지 김주호 그룹장, EY모스크바 회계사 천정우 대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이병만 처장, LS네트웍스 김정훈 지사장
 - (러측, 총 15명) 코제마코 연해주 주지사, 톨릭 연해주 의회 의장, 구메늉 블라디보스토크시장, 브릭 블라디보스토크시 의회 의장, 흐루쉬체프 연방교통부 블라디보스토크 대표, 스트라치코프 연해주 국제협력국장, 코로스테레프 캄차트카주 경제개발부 장관, 페트라코바 캄차트카주지사 비서실장, 카피토노프 사할린 수산청 부청장, 테키에프 베르쿠트 그룹 회장, 스투프니츠키 연해주 상공회의소 회장, 톤키호 나선콘트란스 대표, 예로힌 EY 극동대표, 세메니힌 FEMRI 소장, 부로프 네벨스코이 국립해양대 총장

□ 세부 프로그램

시간	주요 내용
18:00~20:00 *사회: 이성우 본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 극동러 개발을 위한 한러 협력 성과와 확대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측) KMI 이성우 본부장 - (러측) 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행 방식: 한러 교대 자유 토론 ■ 세부 논의 주제 및 방향(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극동러 발전 현황과 방향 (러측 정부 또는 주정부 참석인사 중심) ○ 극동러에서의 신북방 정책 추진 현황과 방향 (한측 연구기관 중심) ○ 참석인사 자유 발언 (분야별 협력 현안 및 확대 방안 중심)

* 상기 일정은 현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3 9차 한러극동포럼 프로그램(안)

○ 일시 및 장소: 2019.6.5(수). 09:00~18:00, 롯데호텔 다이아몬드A홀

구 분		주요 내용	
09:00~09:30		참가자 등록 및 네트워킹	
개회식			
09:30~09:55	개회사	(한측) 양창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장	
	축 사	(러측) 코제마코 연해주 지사(잠정)	
	기조연설	(한측) 박근태 CJ대한통운 대표(한러기업협의회장)(잠정)	
09:55~10:00		사진 촬영	
Session I		농수산 분야 초국경 Supply Chain 구축의 기회와 도전	
10:00~12:00 좌장: Boris Stupnitsky 연해주 상공회의소장	주제 발표 각 15분	1. 극동러 농업 공급사슬 구축의 기회와 도전 (알렉세이 에멜류야노프 농바이오연구센터 극동대표) 2. 극동러 수산업 공급사슬 구축의 기회와 도전 (장홍석 박사, KMI) 3. 극동러 농수산 공급사슬 구축 한러협력 회고와 전망 (세르게이 레루힌 극동수산물거래소 대표) 4. 남북러 초국경 농수산 공급사슬 구축의 새로운 방향제언(김종선 센터장, 농경련)	
	토론 각 10분	(한) 엄선희 실장(KMI), 안동환 교수(서울대) (러) 마요로프 극동투자수출지원청 투자국장, 마틴 테이트 Tate그룹 대표	
12:00~13:30		오찬	
Session II		제조업-산업단지 분야 초국경 Supply Chain 구축의 기회와 도전	
13:30~15:30 좌장: 장지상 산업연 원장	주제 발표 각 15분	1. 러시아의 제조업 국제경쟁력 확보 목표와 극동에서의 과제 (러 극동북극개발부 또는 극동투자수출지원청) 2. 극동러 제조업 활성화를 위한 산업단지 조성 현황과 과제(이현주 박사, 국토연) 3. 극동러에서의 제조업 공급사슬 구축의 제약요인과 대응방안 드미트리 쿠디노프 마스다솔러스 대표/(후보)극동조선수리센터(즈베즈다) 4. 극동러 제조업 분야 남북러 산업협력과 공급사슬 구축방향(김학기 박사, 산업연)	
	토론 각 10분	(한) 이백진 소장(국토연), 전명수 교수(블라디보스토크경제서비스대), 이병만 처장(LH 한국토지주택공사) (러) A. 예로힌 언스트&영 극동대표, N. 프리시키나 법무법인 Pepeliaev 극동대표, V. 필로넨코 하바롭스크주정부 대외경제부차관(잠정)	
15:30~15:50		Coffee Break	
Session III		초국경 시대 Supply Chain 구축 촉진 방안	
15:50~17:50 좌장: 강현수 국토연 원장	주제 발표 각 15분	1. 러시아 국제 트랜짓 수송 활성화 목표와 한러 협력과제 (미하일 홀로샤 FEMRI 부대표) 2. 극동러 제조업 분야 공급사슬 구축을 위한 투자 다각화 사례 (천정우 컨설턴트, EY모스크바) 3. 러시아의 북극해 자원개발과 공급사슬 구축 계획 (데니스 부로프, 네벨스코이국립해양대 총장) 4. 한러 자원 공급사슬 연계 북극항로 활성화 방안 (조지성 박사, KMI)	
	토론 각 7분	(한) 안병민 박사(국가안보전략연구원 객원연구위원), 임영태 박사(국토연), 김주호 그룹장(포스코에너지) (러) 이고르 후루시체프 러연방교통부 블라디보스토크 대표, 드미트리 코로스테레프 캄차트카주정부 경제개발부 장관, 이반 토키흐 라선콘트란스 사장	
17:50~18:00		마무리 (이성우 본부장)	

* 상기 일정은 현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 가능



신북방 경제협력 플라자 사업 안내문

'19.5.14 KOTRA 블라디보스톡무역관

KOTRA는 제9차 극동포럼과 연계하여 '신북방 경제협력 플라자'를 개최합니다. 한·중·러가 국경을 접하고 있는 극동지역은 엄청난 경제적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동북아 정세 변화에 따라 초국경 협력시대 개막 전망으로 그 어느때보다 한·중·러 경험 채널 구축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한·중·러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 사업개요 * 제9차 한러극동포럼 연계

- 일시 : 2019.6.5.(화) 14:00~17:30
 - * 극동포럼 plenary session 및 네트워크 오찬 후 주제별 세션 시간과 병행 개최
- 장소 : 블라디보스톡 롯데호텔 다이아몬드 B홀
- 참가 : 극동러 프로젝트 디벨롭퍼 및 수행·협력 희망 기업
 - * 중국 조선족 동포기업가 및 중국 투자가 포함
- 내용 : 프로젝트 1:1 상담회

□ 상담 프로젝트 개요

연번	구분	기업/기관	프로젝트 내용
1	한국진출기업	호야씨앤티	연해주 부동산 개발(짚질방, 딸기체험농장 등 휴양시설) 샌드위치판넬, 보일러, 바닥온수히팅시스템 판매
2	한국진출기업	피오네르보스토카	연해주 고랭지 채소재배 클러스트 조성
3	한국진출기업	다원그룹건축사	연해주 건축 설계 협력
4	고려인기업	Posyetskaya	포시에트 연안 수산가공 콤플렉스 개발
5	고려인기업	Sea Trade	우수리스크 막걸리 생산 공장 건설 프로젝트
6	러시아기업	Ecomett	연해주 Ash 및 Slag 재활용 콤플렉스
7	러시아기업	Ecostar Factory	연해주 폐기물 처리시설 구축 프로젝트
8	러시아기업	Dalstar	연해주 인삼, 영농, 바이오체험 콤플렉스 구축

* 기업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